

같이 보기

: 미디어 속 직업병

장시간 아이폰 사용이나 지속적인 소음 노출은 우리 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특히 콜센터 등에서 장시간 전화 통화로 고객을 상대해야 하는 이들은 더욱 조심해야 하는 것이 소음 노출에 의한 청력 손실과 난청이다. 잘못 관리하면 영원한 청력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글 편집실

장시간 소음 노출이 불러오는 ‘청력 손실과 난청’

영화 <더콜(2013)>



구급상담 요원과 납치된 소녀를 이어주는 전화 통화

하루에 수십만 건의 벨소리가 울리는 911 센터의 유능한 요원이자 팀장인 조던(할리 베리). 몇 개월 전 한 소녀의 응급 전화에 평소와 같이 대처하다가 작은 실수로 그 소녀가 살해당했다. 그 이후,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상담 요원에서 물러나 신입 요원 교육만 하고 있던 그녀. 어느 날, 그때와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한 소녀로부터 걸려 온 전화를 그녀가 담당하고 있는 견습 요원이 받게 된다. 달리는 차 트렁크에 갇힌 소녀 케이스의 긴급한 구조 요청에 직접 전화를 받아 통화를 이어가는 조던은 케이스를 우선 안심시키기 위해 이름을 묻고 좋아하는 영화를 물어보며 안정시킨다. 이후 현재 상황에서 케이스가 할 수 있는 대처법을 알려주며 아슬아슬하게 통화를 이어간다. 조던이 케이스와 전화 통화를 꾸준히 이어가는 동안 경찰은 범인을 추적해 나가는 긴박한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결국 전화 통화는 끊어지고 만다. 몇 개월 전 그 사건과 동일한 범인임을 직감한 조던은 케이스를 구하기 위해 찾아간다. 이처럼 911 센터에 걸려 오는 신고 내용은 천차만별이다. 그만큼 센터 요원들은 강도 높은 압박감과 스트레스를 받음으로써 심리적, 신체적 직업병을 얻기 쉽다. 그중에서도 긴 시간 전화 통화로 인한 소음 노출로 청력 손실이나 난청이 찾아오기 쉽다.

지속적인 소음 노출이 불러오는 청력 상실

콜센터나 상담센터, 또는 터널 공사 등 장기간 소음이 유발되는 곳에서 큰 소리에 노출되어 있으면 코르티 기관 모세포의 변성탈락에 의해 청력 손실이 일어난다. 이러한 청력 손실은 다시 회복이 되는 일시적 청력 손실과 지속적인 소음 노출로 인해 청력이 완전히 손실되는 영구적 청력 손실로 나뉜다. 보통 청력 손실의 정도는 노출 소음에 따라 증가하는데, 청력 손실이

가장 큰 주파수대는 4,000Hz라고 한다. 이렇게 청력이 손실되면 난청 즉, 말이나 소리를 듣는데 어려움이 생긴다. 난청은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증상 자체를 말하는데 유발 원인에 따라 여러 진단명이 있지만 산업 현장에서 유발되는 난청의 경우 보통 소음성 난청인 경우가 많다. 소음성 난청은 85dB 이상의 큰 소음에 지속해서 노출되거나 장시간 노출되면서 청력이 손실되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에는 소음이 많은 현장에서 근무하며 지속해서 소음에 노출이 된 노동자에게 나타나는 직업병으로 알려졌으나 최근에는 스마트폰이나 이어폰을 장시간 사용하면서 걸리는 경우도 많다. 청력 손실로 난청이 발생했을 경우, 청력도를 증상에 따라 MRI 같은 검사를 시행해 진단하며 대부분 원인이 되는 소음을 제거하거나 멀리하여 휴식을 통한 회복을 꾀한다. 일시적인 휴식을 통한 회복이 어려울 경우 보청기나 인공와우, 청능언어재활 등을 통해 치료한다. 🗣️

청력 손실 예방 및 난청 단계

예방

- 이어폰 대신 헤드폰 착용
- 지속적인 소음 노출 환경일 경우 정기적인 청력 검사
- 큰 소음에 노출될 경우 청각세포 회복을 위한 귀 휴식
- 소음이 심한 환경 근무일 경우 귀마개 또는 귀땃개 착용

난청 단계

- 정상 청력: 작게 속삭이는 소리까지 잘 들림. 일상대화 가능
- 경도 난청: 시끄러운 장소에서는 대화가 불가능
- 중도 난청: 말소리를 듣는 것이 어려움. 조금 먼 거리의 소리 듣지 못함
- 중고도 난청: 말소리가 들리지 않아 이해하는 것이 어려움
- 고도 난청: 귀 가까이에서 얘기해야 들리고 가까운 거리도 큰 소리만 들림
- 심도 난청: 소리에 반응이 없으며 매우 큰 소리에만 반응